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 호스피스 완화의료 일반인 교육



9월 20일~2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심 있는 일반인 32명과 대전교구 및 청주교구 부제반 9명을 대상으로 일반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떻게 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10월 3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을 맞이해 본원에서는 로비에 본원 이용객을 위해 호스피스 홍보물을 게시하고 사탕과 리플렛을 나누어 드리고, 직원 식당 입구에 1년간 호스피스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사탕을 나누었다.

### ▶ 사별가족 미사



11월 8일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사별가족을 병원으로 초대해 함께 미사를 드렸다. 총 다섯가족이 방문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II(실무교육)  
11월 15일, 21일, 23일 3일간 호스피스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였다. 통증 조절, 돌봄 계획 수립, 윤리적 갈등 상황 등 실제 호스피스 돌봄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 휘산메리놀병원

### ▶ 호스피스의 날 주간 행사 개최



10월 26일,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를 알리고자 하였으며, 캘리그래피 엽서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호스피스 홍보활동을 이어 나갔다.

### ▶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 미사

사별가족모임은 ‘그리움을 만지다’를 주제로 9월에 1회기, 10월에 2회기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고인의 추억을 어루만지고 사별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에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



료센터에서 임종하신 분들을 위한 추모식과 추모 미사를 진행하면서 사별가족들과 그들

을 돌보았던 호스피스 팀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 해의 사별가족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하였다.

### 부산성모병원

#### ▶ 한가위 축제



9월 26일 추석의 넉넉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 환자와 가족, 병동의 팀원들이 참여, 내 손으로 송편도 빚고 게임 - 투호, 고리 던지기 하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한가위 풍습을 재현하며 웃음과 재미가 넘치는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 ▶ 완화의료 주간 호스피스의 날 기념, 캠페인



10월 17일 완화의료 주간을 맞이하여 본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께 호스피스를 알리는 장

을 마련하였다. 호스피스 바로 알기 위한 퀴즈를

준비하여 제대로 인식하는 과정이 되었으며 홍보물로는 시장바구니와 생분해 성분으로 만들어진 물티슈로 환경을 생각하는 장도 함께 하였다.

#### ▶ 사별가족 모임



10월 31일 코로나로 모임이 조심스러웠던 날들을 뒤로 하고 사별의 슬픔과 회한을 가슴에

담고 있는 가족들을 모시고 위로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 허심탄회하게 감정 표현도 권하며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는 동행의 자리를 마련, 눈물과 감사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 호스피스완화의료 소진관리 프로그램- 기관방문 및 आय회



6월~8월 코로나19가 완화된 것을 기회로 आय회 겸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함께하며 시설 및 운영 현황, 기

관의 장점 등을 파악하며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직원 총 24명이 4회로 나누어 팀 내 다직종 간 소통하며 전시회, 박물관 관람, 휴양림 산책을 즐기며 힐링 타임을 보낼 수 있었다. 함께 근무하면서 서

로 어려웠던 경험 이야기를 하며 더욱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 자문형 호스피스 간담회 개최



6월 27일, 10월 3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개, 홍보를 위해 혈액내과 입원전담의, 입원

의학과 입원전담의를 호스피스병동으로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호스피스 소개 동영상 시청,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한 흐름과 안내를 통해 호스피스로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입원전담의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환자 보호자에게 호스피스에 대해 설명 후 권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간담회가 긍정적이었음을 말했다.

▶ 추석 행사



9월 27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입원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한복과 전통 장신구를 촬영하여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환자와 가족들 사진을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 선물하였다. 환자와 가족들은 소원 카드를 작성하여 직접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면서 추석 분위기를 함께 더했다. 이노비 음악회 이후 명절 음식을 제공하여 가족들도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함을 전했다.

성가를로병원

▶ 사별가족 아유회



5월 25일 사별가족과의 만남을 광양 옥룡 계곡에서 함께했다. 간식을 하며 서로 생활 나눔으로 마음 안에 간직된 응어리를

자연스럽게 뿔어내 마음속이 주변 자연처럼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 한가위 맛이 송편빚기 이벤트



9월 28일 명절 분위기로 전환하여 집에서 느끼는 명절 준비를 위한 송편 만들기 이벤트~~

풍성한 한가위가 어떤 느낌인지를 송편 빚는 과정, 다양한 모양의 완성된 송편과 대하, 다과로 나눔이 풍성해지니 말하지 않아도 풍성한 한가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함박웃음으로 분위기가 활짝 핀 꽃밭 같았다. 이에 마음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캠페인



10월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 브릿지(구 틸다리)에서 광주·전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6개 기관 실무자들과 광주 3개구 보건소 직원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했다.

###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 뜨락 편지(매월)

호스피스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후원자,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환우, 사별가족들께도 마음을 전하고자 매월 초에 '뜨락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 ▶ 사별가족 돌봄



매월 사별가족 그룹모임을 통해 자연치유요법, 쿼트, 음악요법등을 적용하여 상실감과 슬픔을 털어내며 연도와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이 약이라 해도 엮어져 가는 사별의 아픔은 불현듯 힘들게 하기에 정기적인 만남을 기다리게 되고 힘을 얻어 돌아간다고 한다.

#### ▶ 야외 위령미사

11월 4일 사별가족, 후원자, 봉사자들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영혼들과의 통교를 느끼며 연도를 바치고 미사 후, 뜨락에서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도 나누었다.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과정II(실무교육)



8월 23일~2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과정II(실무교육)를 진행하였다. 본원 암병원에서 3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3명이 수료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강의 및 토의식으로 진행되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팀 접근에 역할 및 중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 ▶ 한가위 행사



9월 27일 한가위 축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한가위 선물로 오란다를 전달하며 오전에는 보

름달 모빌에 소망을 적어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오후에는 환자 및 보호자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웃놀이', '단청 팽이 돌리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2023년 사별가족 모임 & 추모제



11월 18일 2022년 10월 ~2023년 9월 까지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입

원형, 가정형, 자문형)를 이용하고 임종한 환자분의 사별가족들을 초대하여 2023년 사별가족 모임 & 추모제를 진행하였다. 15가족 총 30명의 사별 가족분이 함께 하였으며, 미사, 추모 영상 및 편지글 낭독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감정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케스트라 공연, 미술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별 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되었다.

익산성모병원

▶ 팀원 소진 프로그램



8월 31일 팀원들이 함께 모여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다. 만드는 과정에서 향에 취하여 각자가 힐링이 되었고 11월 2일 부여 부소산성으로 여행을 떠나 늦가을 오색 단풍을 만끽하며 낙화암에서 배를 타고 물과 산과 바람에 마음을 싣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기에 충분한 마음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11월 2일 부여 부소산성으로 여행을 떠나 늦가을 오색 단풍을 만끽하며 낙화암에서 배를 타고 물과 산과 바람에 마음을 싣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기에 충분한 마음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 이벤트

9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자, 가족과 함께 팀원들이 한데 모여 추억의 송편을 만들고 9월 27일 추석 명절 선물로 환자, 보호자에게 다양한 부각 세트를 선물로 드리며 풍성한 추석이 되시길 인사드렸다.

▶ 병동 개원 7주년 기념

9월 2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개원 7주년 기념식과 다과회가 있었다. 우경숙 병원장 수녀와 박상훈 의무원장의 짙막한 인사말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그동안 호스피스병동을 거쳐 가신 분들이 440분이나 되었다.

▶ 호스피스의 날 홍보



10월 12일 호스피스의 날 맞아 전북지역암센터가 지원하는 커피 포차를 이용한 홍보가 원

광대학병원에서 원병원과 익산성모병원이 함께 홍보위원으로 4인씩 각 기관이 참가하고 700분에게 커피 봉사와 홍보 물품, 팸플릿을 나누고 호스피스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 사별가족 모임



10월 26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호스피스 사별 가족 모임이 있었다. 6분이 참석하여 원예

요법을 통해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나누었다. 점심으로 따뜻한 중국 음식으로 대접하여 마음의 위로를 드렸다.

## 천주의 성모한의원

### ▶ 힐링 타임 작은 음악회 (클래식 기타 공연)



9월 12일 작은 음악회를 통해 입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정서적 회복과 환기, 휴식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 ▶ 돌봄 프로그램 (화초 데이)



10월 30일, 11월 2일 화초의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색감을 느끼고 식물을 가꾸는 재미를 제공하여 병실 생활의 활기를 드리고자 하였다.

### ▶ 일반인 대상 대중 교육



11월 23일 61기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과 이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 ▶ 가톨릭중앙의료원 8개 부속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EMR 표준화 프로젝트: 진료분야 서식 개발 및 배포

2022년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EMR 표준화 및 질 지표 관리 프로젝트를 8개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진료분야의 전인적 돌봄 상담기록 서식을 개발하였고,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파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와 공유하였다. 본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8개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의 성과 데이터 축적 및 수집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전체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제15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APHC) 학회 참가, 홍보 부스 및 기관 방문 프로그램 운영



10월 4일~7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학회에 총 5개의 초록을 발표하고, 연구소 홍보 부스 운영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소의 미션 및 비전, 진행 중인 사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기관방문 프로그램에서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와 함께 주관하여 학회에 참석한 연구자와의 국제연구협

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 모든 활동은 호스피스연구소가 추구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제연구협력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II(실무교육) 1기, 2기 운영



11월 27일~29일, 12월 4일~6일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II(실무교육) 1기, 2기'를 운영하였다. 본 교육은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학습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학제 사례 토의, 의사소통 실습 등을 활용하여 말기 돌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기에서 24명, 2기에서 21명(원목자 4명 포함)의 교육생이 수료하였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제23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10월 18일~19일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협회 산하 기관 중 전국 12기관 109명이 참석하여 1박 2일 피정과 심화교육을 하였다. 김정환 신부님 특강(달릴 길을 다 달리고, 한국교회의 성모신심)과 이계호 신부님 특강(호스피스 봉사자의 영성), 그룹 나눔과 발표를 진행하였고, 1일 차 저녁 시간에 병원 별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봉사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많은 10명의 봉사자가 우수 봉사자 상을 수상하였다.



| 우수봉사자 상 수상자 명단 |                |     |
|----------------|----------------|-----|
| 2023-1호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이영흔 |
| 2023-2호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송일권 |
| 2023-3호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김순애 |
| 2023-4호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오인숙 |
| 2023-5호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윤영희 |
| 2023-6호        | 부산메리놀병원        | 황경애 |
| 2023-7호        | 부산성모병원         | 조순화 |
| 2023-8호        | 성가롤로병원         | 김영순 |
| 2023-9호        |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전옥경 |
| 2023-10호       | 익산성모병원         | 김성자 |